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_ 김수영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
 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야경꾼: 밤사이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힘 있는 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할 용기는 내지 못하면서 힘없는 이들을 향해 사소한 일에만 분노를 표출하는 화자가 자신의 옹졸함을 성찰하는 시이다. 이 시에서 '고궁'이 권력을 상징한다면 '왕궁의 음탕'은 그 권력의 전횡과 부패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경험과 일화를 열거하고 자조적 물음을 반복함으로써 치열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1, 2연: 심각한 사회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나'
- 3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몸에 밴 '나'의 옹졸함
- 4, 5연: 절정에서 비켜서 있는 '나'의 비겁함
- 6연: 옹졸하게 반항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
- 7연: '나'의 옹졸함에 대한 자조와 반성

✓ 주제 : 부당한 사회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시민적 속물근성에 대한 반성

- 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에서 '나'는 뒤에 열거되는 여러 가지 행위의 주체이자, 그 행위들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조그마한 일에만'에서 배타와 한정 의미의 의미를 드러내는 보조사 '만'의 사용은 정작 크고 심각한 일들에는 분개할 줄도 모르는 '나'가 사소한 일들에 한정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 ② <보기> 이 작품 창작 당시(1965년)의 역사적 상황
 -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지 못함. (민족 구성원 저마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 독재를 끝내자는 4·19 혁명이 온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함.
 - 군사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세력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빌미로 자유와 민주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억압함.
 - 한·일 협정 체결이나 월남 파병 같은 중요 사안들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권력층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강행됨.
 - 정의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내하고자 했던 소수를 제외한 시민 대부분은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젖어 사회적 이슈에는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음.
- ③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붙잡혀 간 소설가'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게 된 이에 해당할 것 같아. (화자는 그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비겁함을 부끄럽게 여긴다.)
- ④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서 '정보원'이 했던 말은 화자에게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옹졸한 나의 전통'을 자각하게 하는 심리적 상처 중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
- ⑤ 화자는 자신이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는 것(=소시민적 삶의 태도)을 두고 '절정 위'(=불의와 대결하며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삶)가 아니라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고 표현한 것 같아.
- ⑥ 화자는 '바람아 먼지야 풀아'라고 호명한 대상에게 '나는 얼마큼 적으냐'라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소시민적

삶(사회적 이슈에는 침묵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 같아.

- ⑦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라는 시구를 통해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은 서로 종류가 다르다는 차별적 인식이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⑧ '50원짜리 갈비'라는 시구의 내용을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당시의 물가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T H E - 깊 은 독 해]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 화자 '나'는 '왜 ~ 분개하는가'라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사소한 일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분노하는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즉 정작 분개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조그마한 일'은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일을 뜻하며, 뒤에 나오는 '왕궁의 음탕'과 대조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조그마한 일'이 약자들의 소극적 저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 '저 왕궁'은 <제목>을 고려하였을 때, 고궁을 둘러보고 나오는 시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왕궁'과 '왕궁의 음탕'은 따옴표로 분개해야 할 대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앞서 나온 '조그마한 일'과 상반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음탕이 음란하고 방탕하다는 뜻임을 고려하면, 권력의 부정과 부도덕함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다.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 '50원짜리 갈비'라는 단어를 통해 당시의 물가 수준이나 화폐 가치가 어느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온 일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의 예시 중 하나이며, '왕궁' 및 '왕궁의 음탕'과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옹졸하게'라는 표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조감과 자괴감이 담긴 표현이다. (즉, 화자는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지 알고 있다.) 또한 '돼지같은 주인'이라는 비속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속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옹졸하게 욕을 하고

→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1연 : 사소한 문제에만 분개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거나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일들은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일로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에 해당한다.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 본질적인 문제에는 행동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침묵한다는 의미이다. '이행'이라는 말에 주목하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의 예시 중 하나이다. 사실 갈등을 벌여지 않아야 할 일에 해당한다.

▶2연 :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사소한 문제에만 집착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 여기서 '옹졸한 나의 전통'은 오랫동안 사소한 일에만 집착해 온 버릇을 뜻하며, '정서로 / 가로놓여 있다'는 것은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사소한 일에만 집착하는 행동이 오래되어서 몸에 배어 있다는 의미로, 무기력한 삶을 나타낸다.

이러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 화자의 과거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 개키고 있는' 것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의 예시 중 하나이다. '포로 경찰이 되'는 것은 본질적인 일로서, 소극적인 나의 모습과 적극적인 의미의 포로 경찰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 여기서 '이런 일'은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는 사소한 일에 해당할 것이다.

너스들 옆에서

→ 간호사를 앞에서 비웃음을 당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포로수용소의 일화는 '나'의 옹졸한 행동(소시민적인 태도)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3연 : 오랫동안 몸에 배어온 '나'의 옹졸한 모습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 화자는 여전히 사소한 일에만 반항하고 있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도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 사소한 일상조차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나 고난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화자 자신이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며 왜소하고 무기력한 삶을 모습을 보여준다.

▶4연 : 사소한 일에만 반응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 본질적인 문제에 맞서거나, 문제의 한복판에 서있지 못하고 옆으로 벗어나 있는 화자의 소시민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이때 '절정'은 불의에 항거하는 등 본질적인 문제 상황을 의미하고, '옆으로 비켜서 있다'는 표현은 화자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은 방관자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화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 하지만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5연 : 방관자적인 자세에 대한 '나'의 고백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 강하게 항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에 해당한다.

이발쟁이에게 / 땅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 '이발쟁이'와 '야경꾼'은 힘없는 자를 나타내고, '땅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은 힘있는 자를 나타낸다. 화자는 이러한 이십 원, 십 원, 일 원'처럼 사소한 일로 힘없는 자에게 반항하는 자신의 웅졸함에 대해 '우습지 않느냐'라는 표현으로 자조적 반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6연 : 힘없는 자에게만 반항하는 자신의 웅졸함에 대한 자조적 반성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 '모래'는 보잘것없는 자연물로, '나'의 왜소함과 보잘것없음을 부각하는 대상이다. 즉 이 행은 화자 자신이 모래보다 더 작은 존재가 아니냐고 묻는 표현으로, 자신이 모래보다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자는 자기 자신을 모래, 바람, 먼지, 풀보다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때 모래, 바람, 먼지, 풀은 화자의 왜소함과 보잘것없음을 부각하는 대상들이다.

정말 얼마큼 적으나……

→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조적 독백에 해당한다. '얼마큼 적으나'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조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며 반성과 자조 의식의 지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7연 :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대한 자조적 독백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 '나'가 곁으로 드러나 있음 [소시민]
- 상황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기록함 [일상의 사소한 것에만 웅졸하게 화를 내는 것을 자조함]
- 정서·태도 : 성찰(반성)적, 자조적, 자기반성을 통한 교훈 전달

[연 관 - 기 출 문 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
 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십사(第十四) 야전 병원(野戰病
 院)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
 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일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 * 월남 파병: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한 일.
- * 야경꾼(夜警-): 밤사이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 * 동회(洞會): 예전에, '동사무소'를 이르던 말.

(나)

- ㉠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더라
- ㉡ 낮말은 쥐가 듣고 밤말은 새가 들으니
입이 열이라서 할 말이 많구나
듣거라 세상에 원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국을 위해
누이는 피 흘려 철야작업을 하고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해서
쌍심지 돌우고 공장문을 나섰더라
- ㉢ 너무 배불러 음식을 보면 회가 먼저 동하니
남이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삼켰더라
대낮에 코를 버히니
슬프면 웃고 기뻐 울었더라
얼굴이 없어 잠도 없고
- ㉣ 빵만으론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더라
물구나무서서 세상을 보고
멀리 고향 바라 울었더라
못 살고 떠난 온 논바닥에
세상에 원
- ㉤ 아버지는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수염만 허영게 뿌리를 내렸더라

- 정희성, 「물구나무서기」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시구의 반복을 통해 지배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단호한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 ④ 색채어의 활용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⑤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김수영은 억압적 사회 현실과 관련한 주체로서의 각성과 반성을 잘 보여 주었다. 그것은 특권 계급의 전횡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처럼 정작 분노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사소한 문제로 힘없는 이웃들만 증오하는 웅졸한 소시민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조하는 태도로 드러나 있다.

- 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이라는 표현에는 전횡을 일삼는 특권 계급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분노가 반영되어 있군.
- ② 화자는 ‘언론의 자유’나 ‘월남 파병’의 문제에 침묵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군.
- ③ ‘개의 울음소리’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도 화자가 자신에 대해 자조적 태도를 지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군.
- ④ ‘절정 위’가 아니라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는 진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한 각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사소한 문제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힘없는 이웃으로 화자는 ‘이발쟁이’나 ‘야경꾼’을 들고 있군.

3. <보기>를 중심으로 (나)의 ㉠~㉣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모순된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풍자하기 위해 일반적인 대상의 정상적인 상태를 비틀거나 뒤집어 놓는 표현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① ㉠ :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물구나무선 나무의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부정적 현실에 대한 풍자를 시작하고 있다.
- ② ㉡ :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속담을 비틀어 놓음으로써 현실의 모순적 양상과 이를 적극적으로 풍자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 반어와 역설을 통해 구체적 현실 상황을 뒤집고 비틀음으로써 노동자들의 고된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일반적인 표현을 비틀어 놓음으로써 끝없는 욕망을 제어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⑤ ㉤ : 아버지로 표상되는 농민의 모습을 뒤집어, 물구나무선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농사에 평생을 바친 이들이 고통받는 농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
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 수용소의 제십사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앞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농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일 원 때문에

㉤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야경꾼: 밤 사이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 너어스들: 간호사들

4. ㉠~㉤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③ ㉢: 의도적 행갈이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 ④ ㉣: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동일 시구의 반복과 변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일상적 제재와 비속어의 사용은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본 김수영 시
의 특징이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비판 정신
은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된다.

- ①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표현은 설렁탕집 주인의 속
물적 근성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겠군.
- ②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소시민성에
대한 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③ ‘전통은 유구’하다는 인식은 과거 자신의 처신에 대한
정확한 응시에 근거한 것이겠군.
- ④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기존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
항하는 것이라 하겠어.
- ⑤ ‘나’의 반성은 자기비판을 넘어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
에 맞서는 힘이 될 수 있겠군.

[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
 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A]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나)

[앞부분의 줄거리] 공룡의 잦은 침입을 받는 나라가 있
 었다. 어느 날 박물관장이 알을 들고 왕과 시민 대표 앞
 에 나타나 내일 알에서 공룡을 물리칠 강력한 왕이 깨어
 날 것이라고 말한다. 왕은 고심 끝에 알에서 깨어날 왕에
 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결심을 하고 자결을 한다. 왕이
 죽자 박물관장은 알 속에는 왕이 아니라 공룡이 들어 있
 다고 말한다. 그리고 죽은 왕을 대신해 왕 노릇을 한다.
 이에 시민 대표들은 회의장에 모여 밤새 토론을 벌인다.

<제3막>

시민 가: 알을 깨서 확인합시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
 는지, 깨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박물관장: 그것 좋겠군!

시민 가: (알을 들어 던지려 한다.)

시민 라: 제발, 그건 안 됩니다.

시민 가: 우리들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시민 라: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임금님이 계실지도 모를
 알을 깨트리려 하십니까?

시민 가: (번민하며) 비록 당신의 주장이 맞을 확률이 반
 절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반절의 가능성이 들어맞아
 서, 정말 공룡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소?

시민 다: (라를 가리키며) 더구나 이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어 알 속에 위대한 임금님이 계신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라
 고 얼마 전에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군중: (소리) 그렇다.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시민 라: (무릎을 꿇고 군중에게 호소한다.) 시민들이여,
 위대한 임금님 대신에 사기 도박꾼을 왕으로 섬기려
 하십니까?

시민 나: (털썩 주저앉아 군중에게) 시민들이여, 당신을
 잡아먹는 공룡을 왕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차라리 그
 어떤 사기꾼일지라도 공룡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박물관장: 에이, 꼴 보기 싫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 (퇴장
 하려 한다.)

시민 나: (황급히 박물관장을 가로막으며) 왜 이러십니까?
 자, 지금 시민들이 손을 들려고 하지 않아요? (군중에게)
 시민 여러분, 표결합시다. 먼저 박물관장을 왕으로
 택할 시민들은 손 드시오.

군중: (열광적인 소리) 와! 새 임금님 만세! 우리들은 공룡이 싫다!

(라를 제외한 시민 대표들도 손을 든다.)

시민 나: 다음은 저 알을 택할 시민은 손 드시오.

군중: (침묵) / 시민 라: (손을 든다.)

시민 나: 단 한 명. (박물관장에게 왕관을 씌워 주며) 시민들은 당신을 임금으로 선출하였습니다. / 군중: (환호성을 지른다.)

시민 가: (라에게) 너무 상심마시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시민 라: (허탈한 표정으로 시민들을 등지고 멀리 물러난다.)

박물관장: (군중에게) 시민들은 듣거라. 너희들은 어젯밤 군악대를 동원하고 불꽃놀이를 하며 잘 놀았다. 더구나 궁전예까지 몰려와 날이 새도록 소란을 떠는 바람에 나는 단잠을 설쳤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 해가 뜬 줄도 모르냐? 남자들은 직장으로, 여자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일을 해라. 즉시 해산하라! 돼지같이 게으른 놈들, 실컷 쳐놀고선 또 무얼 바라고 움직이지 않는 거지?

시민 나: 전하, 시민들은 전하께서 알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해서 해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장: 그래? (알을 들더니 상자 있는 곳까지 운반해와서 그 속에 집어넣는다.) 상자 속에 넣어 뒀어지.

시민 나: (㉠) 아니 전하, 그 상자 속에 넣어 두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부화되어 나오지나 않을까요?

박물관장: 너, 이리 와서 상자 속에 손을 넣어 보려무나.

시민 나: (조심스럽게 상자 속에 손을 넣어 휘젓는다.) 알이 없는데요?

박물관장: 염려 마라.

시민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도 손을 넣어 볼까요?

박물관장: (고개를 끄덕인다.)

시민 다: (상자 속에 손을 넣고 휘저으며) 어디로 갔을까? 정말 마술처럼 알이 없어졌군요!

박물관장: (군중에게)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다. 공룡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 너희들은 안심하고 해산하라!

군중: (환호성) 위대한 임금님, 만세!

(해산하는 군중을 따라 함성은 점점 멀어져 간다.)

박물관장: (옥좌에 앉으며) 돼지 떼가 다 물러갔구나.

시민 나: 전하, 듣기 거부하옵니다. 왜 시민들을 돼지 떼라 부르십니까?

박물관장: 그런데 여기엔 몇 마리 돼지들이 남아 있군. 그

래,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니?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셨었다. 그런데 돼지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부화를 중지시키다니 어리석기도 하지.

시민들: (라를 제외하고) 이 사기꾼놈아, 우리들을 속였구나!

박물관장: 임금더러 사기꾼이라? 흥, 너희들의 어리석음이 나의 도박에 비해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시민들: 정말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박물관장: 그렇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알은 부화되어 위대한 임금님이 나오셨을 텐데……. 자, 돼지들아, 괴로워하라. 이마를 땅에 찜으며 어리석음을 한탄하라.

시민들: (쓰러져서 가슴을 치고 몸을 굴리며 괴로워한다.)

시민 라: (허탈에 빠진 그는 멍하게 시민들을 바라본다.)

박물관장: (잠시 후에) 아냐, 사실은 알 속에는 공룡이 들어 있었어.

시민들: (고통의 몸짓을 멈춘다.)

박물관장: 그게 아니야,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셨어.

시민들: (고통을 당하듯이 신음 소리를 지른다.)

- 이강백, 「알」 -

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적 상황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등장하는 화자가 구체적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7. (가)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자조적인 인식을 지속시키고 있다.
- ㉡ 화자의 왜소한 모습을 미미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 ㉢ 비열한 방법으로 사회에 반항하는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화자의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8.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는 시어를 통해, 희곡은 대사를 통해 작중 상황을 구체화시키고 주제를 드러낸다. (가)에서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한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상징적인 대사를 통해 작중 상황에 대한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와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저 왕궁’은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권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기름덩어리만’ 나온 ‘50원짜리 갈비’는 본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사소한 일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은 화자가 집단의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과거를 보여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군중이 기대하는 ‘위대한 임금님’은 외부의 침입을 막고 시민들이 지닌 두려움을 없애 줄 인물을 상징하겠군.
- ⑤ (나)에서 박물관장이 말하는 ‘돼지 떼’는 시민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대중을 바라보는 박물관장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9. (나)에서 ‘알’에 대한 각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물관장: “이것을 이용하여 왕이 되어 볼까?”
- ② 시민 가: “당장 깨서 왕인지, 공룡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 ③ 시민 나: “시민들의 뜻에 따라 왕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알을 처리하는 것이 옳아.”
- ④ 시민 다: “공룡이 나올지도 모르니 깨 보는 것이 좋겠어.”
- ⑤ 시민 라: “알 속에는 분명 위대한 왕이 있을 거야. 절대 깨서는 안 돼.”

10.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독자가 작품을 읽는 것은 가치 있는 문학적 체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지향점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향점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독자에게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제공한다.

- ① 부조리한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군.
- ② 조직적인 힘과 연대가 공동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방법 이겠군.
- ③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겠군.
- ④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군.
- ⑤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오는군.

11. (나)의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힘없는 목소리로
- ② 두려움에 질려서
- ③ 기다렸다는 듯이
- ④ 흥겨움이 들떠서
- ⑤ 분노에 치를 떨며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A]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령당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
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B]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C]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D]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E]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1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사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변화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문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자연물과 합일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와 (나)에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가)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현실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고, (나)는 1960년대의 독재 체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대 현실에 울분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시민적 삶에 머물러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가)의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는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겠군.
- ② (가)의 '시대를 슬퍼한 일'은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억압받던 식민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옹졸한 나의 전통'은 부정적 현실에서 소시민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는 부정적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는 부정적 시대 현실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는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4. (나)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화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화자가 회상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
- ③ [C]에서는 화자가 현재 자신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 ④ [D]에서는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 ⑤ [E]에서는 화자가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현재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1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외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을 완화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분노를 환기하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고뇌를 일깨우고, ㉡은 화자의 자괴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은 화자의 숙명을 각인시키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고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뿌리가 뿔혀 하늘로 뻗었더라
 낮말은 쥐가 듣고 밤말은 새가 들으니
 입이 열이라서 할 말이 많구나
 듣거라 세상에 원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국을 위해
 ㉠ 누이는 피 흘려 철야작업을 하고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해서
 쌍심지 돌우고 공장문을 나섰더라
 너무 배불러 음식을 보면 회가 먼저 동하니
 남이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삼켰더라
 대낮에 코를 버히니
 슬프면 웃고 기뻐 울었더라
 얼굴이 없어 잠도 없고
 빵만으론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더라
 물구나무서서 세상을 보고
 ㉡ 멀리 고향 바라 울었더라
 못 살고 떠난 온 논바닥에
 세상에 원
 아버지는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수염만 허영게 뿌리를 내렸더라

- 정희성, 「물구나무서기」-

(나)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
 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 야경꾼: 밤사이 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16.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물음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관용 표현을 일부 변형하여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1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누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 향수로 인해 애상감에 젖은 '누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 웅졸하게 살았던 과거를 떠올리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 현실에 저항하다가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며 자조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는 민중이 기본적인 생계의 유지도 어려운 비참한 현실, (나)에서는 권력의 부정과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한 현실을 그리고 있다. (가), (나)처럼 부정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의 경우 현실 자체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거나 현실에 대응하는 소시민적인 화자의 태도가 부각되기도 한다. 즉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현실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현실에 대한 각성이나 현실의 모순적 양상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는 화자의 웅졸함, 자괴감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 ① (가)에서 '뿌리가 뿔혀 하늘로 뻗'은 비정상적인 나무의 모습으로 시상이 시작된 것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고자 한 화자의 의도와 관련이 있겠군.
- ② (가)에서 '땀만으론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다고 표현한 것은, 기본적인 생계의 유지도 어려운 민중의 비참한 생활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수염만 허영게 뿌리를 내'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은,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한 화자의 자괴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는 것은,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이 아닌 힘없는 민중에게 분노하는 화자의 웅졸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은, 소시민성에 대한 화자의 각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②

② 두 시 모두 시구의 반복이 작품의 지배적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에서는 ‘얼마큼 작으나’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세상에 원’이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부정적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SCAN]

- ① (가)의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나 ‘우습지 않느냐.’ 등은 설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명령형 어미는 (나)의 ‘듣거라’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가)에서는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나)의 ‘수염만 허영게 뿌리를 내렸더라’라는 시구에서는 색채어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가)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킨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⑤ 공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은 (가)와 (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

[정답 SCAN] ①

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은 ‘이발쟁이’나 ‘야경꾼’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문제 때문에 화자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힘없는 이웃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옹졸하게 분개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돼지 같은 주인 년’이라는 과격한 표현은 그 주인이 진정한 분노의 대상이 될 만한 특권 계급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니라, 자신이 엉뚱하게 분출한 분노의 표현 그대로에 해당할 것이다. 화자가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특권 계급이 일삼는 전횡에 해당하는 시구는 ‘왕궁의 음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SCAN]

② ‘언론의 자유’나 ‘월남 파병’의 문제는 [보기]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침묵하는 자신의 모습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③ 지금 자신이 반항하고 있는 일도 과거 포로 수용소에서 거즈 접기처럼 사소한 일이라고 느끼는 화자는 자기가 ‘개의 울음소리’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농의 투정’에마져 질 정도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도 화자가 자신에 대해 자조적 태도를 지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④ ‘절정 위’가 아니라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고 한 것은 정작 분노해야 할 것들에 대해 침묵하고 힘없는 이웃들만 증오하는 자신의 모습이 옹졸한 소시민의 모습이라는 말이다. ⑤ ‘이발쟁이’나 ‘야경꾼’은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 등과 달리 쉽게 증오의 대상이 될 만큼 만만한 사람들, 즉 사소한 문제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힘없는 이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3.

[정답 SCAN] ④

④ ㉞은 ‘인간은 빵만으론 살 수 없다’라는 인간의 삶은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 이외에 다양한 문화적 욕구도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활용되는 관용구를 비틀어 놓은 시구이다. 시인은 ‘쌀을 훔쳤더라’라는 말을 통해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㉞에 드러난 모습이 끝없는 욕망을 제어할 줄 모르는, 즉 빵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쌀까지 훔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물구나무선 나무, 즉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은 나무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이어질, ‘누이’와 ‘아버지’가 고통받는 부정적 현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풍자하기 위한 비틀기나 뒤집기의 시작에 해당한다.
- ② 원래 통용되는 속담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이다. 그런데 ㉠에서는 이를 비틀어 놓음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풍자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③ 풍족하게 먹지도 못하는 상황을 ‘너무 배불러’라고 반어적으로 뒤집고, 음식을 눈으로 삼켰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실상을 비틀어 놓음으로써 노동자들의 고된 생활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과 대응되는 이미지를 통해, 평생 농사를 지은 아버지를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 수염만 허영게 뿌리를 내렸’다고 하여 물구나무선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 역시 논밭에 정상적으로 서 있는 농부의 모습을 뒤집어 놓음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고자 한 것이다.

4.

[정답 SCAN] ②

- ② ㉠을 보면 과거의 경험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한 상황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경험이므로 정서의 변화를 찾을 수는 없다.

5.

[정답 SCAN] ①

- ① 1연에서 시적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설령탕집 주인이 아니라 ‘왕궁’으로 상징되는 절대 권력이다. 따라서 비속어의 사용은 설령탕집 주인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왕궁’을 비판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기비판을 드러내는 것이다.

6.

[정답 SCAN] ②

- ② (가)는 대조적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부정한 권력과 부조리가 만연한 사회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방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SCAN]

- ①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이라는 대조적 상황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등장하는 화자 ‘나’가 구체적 시적 상황을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옹졸하게’, ‘비켜서 있다’, ‘얼마큼 작으나’ 등의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분개하는가’, ‘중요하고 있는가’ 등의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7.

[정답 SCAN] ①

- ① (가)의 7연은 화자의 자조적인 인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화자의 왜소한 모습을 미미한 자연물(모래, 바람, 먼지, 풀)에 비유하여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 그리고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자조적인 인식을 지속시키고 있다. ㉢

[오답 SCAN]

- ㉣ (가)에서 화자가 사회에 반항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 (가)에서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화자의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8.

[정답 SCAN] ③

- ③ (가)에서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은 화자가 집단적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과거를 보여 주는 공간이 아니다. 화자는 이 일화를 제시하여 화자의 옹졸한 삶이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의 ‘저 왕궁’은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권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상징한다.
- ② (가)에서 ‘기름덩어리’만 나온 ‘50원짜리 갈비’는 본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에 분노하지 못하는 화자가 분노하는 사소한 일을 상징한다.
- ④ (나)에서 군중은 ‘알’에서 ‘위대한 임금님’이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위대한 임금님’은 잦은 공룡의 침입을 막고 시민이 지닌 두려움을 없애줄 인물이다.
- ⑤ (나)에서 박물관장은 시민들을 ‘돼지 떼’라고 한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박물관장의 인식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시민들을 어리석은 대중으로 보고 있음을 상징한다.

9.

[정답 SCAN] ⑤

- ⑤ (나)에서 ‘시민 라’는 알 속에 위대한 왕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알을 부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알이 부화하면 혹시 ‘사기 도박꾼’보다 나은 사람이 알에서 나올지도 모르니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임금님이 계실지도 모를 알을 깨트리려 하십니까?’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SCAN]

- ① 박물관장은 ‘알’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
- ② ‘알을 깨서 확인합시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깨 보면 알 것 아닙니까?’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시민 여러분, 표결합시다. 먼저 박물관장을 왕으로 택할 시민들은 손 드시오.’라고 했던 ‘시민 나’는 왕이 된 박물관장에게 알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고 있다.
- ④ ‘시민 다’는 알을 깨어 보라는 ‘시민 가’의 말을 받아 알을 깨지 말자는 ‘시민 라’를 가리키며 ‘더구나 이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어 알 속에 위대한 임금님이 계신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라고 얼마 전에 반복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였다. 즉 ‘시민 다’는 알을 깨자는 ‘시민 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10.

[정답 SCAN] ③

- ③ <보기>의 관점은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나)를 감상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가 독자와 공동체에 주는 의미를 고려하여 작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의 내용에서 독자들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박물관장의 태도보다는 시민들의 어리석음이다. 시민들의 어리석음이 위대한 왕이 나타날 기회를 없애 버린 것이다. 즉 시민들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다. 그러므로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하면 ③이 적절하다. 박물관장의 말 중 ‘그런데 여기엔 몇 마리 돼지들이 남아 있군. 그래,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니?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셨었다. 그런데 돼지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부화를 중지시키다니 어리석기도 하지.’라는 부분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오답 SCAN]

- ① 개인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의식을 강조한 작품이다. 박물관장의 행태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시민들에 대한 비판이 담긴 작품이다.
- ② 사회 발전을 위해 조직적인 힘과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힘과 연대도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작품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 ④ 언론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어리석은 시민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이야기이다.
- 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판적으로 말하는 작품이다.

11.

[정답 SCAN] ②

- ② ㉠ 뒤에 바로 이어지는 ‘시민 나’의 대사를 보면 ‘시민 나’는 아직도 알 속에 공룡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박물관장’이 상자 속에 ‘알’을 넣어 둔다고 했을 때 ‘시민 나’의 적절한 반응은 ②이다. ㉡ 앞뒤에 있는 ‘시민 나’의 대사 ‘전하, 시민들은 전하께서 알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해서 헤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와 ‘(조심스럽게 상자 속에 손을 넣어 휘젓는다.) 알이 없는데요?’라는 부분을 통해 적절한 지시문을 찾을 수 있다.

[오답 SCAN]

- ① 힘없는 상태가 아니라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이다.
- ③ 공포심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상태이지 기다렸다는 뜻이 반가운 상태는 아니다.
- ④ 흥겹거나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상태이다.
- ⑤ 아직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는 상태이지 분노를 느끼는 상태는 아니다.

12.

[정답 SCAN] ④

④ (가)에서는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나)에서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에서는 '자꾸', (나)에서는 '조금쯤', '얼마큼' 등의 부사어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이러한 부사어의 반복이 화자의 변화된 인식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 ② (나)에서는 '돼지 같은 주인 년'과 같은 비속어가 사용되면서 현실감이 부여되고 있지만, (가)에는 비속어가 사용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떨어지는 은행나무잎'에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됨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⑤ (가)와 (나) 모두 반복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자의 정서가 자연물과 합일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은 (가)와 (나)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13.

[정답 SCAN] ⑤

⑤ (나)의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는 부정한 권력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 화자의 소시민적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보기>는 (가)의 화자가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현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는 자신의 소극적인 모습을 돌아보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에 따라 (가)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시대를 슬퍼한 일'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 ③ <보기>는 (나)의 화자가 자유를 억압받던 시대 현실 속에서도 소시민적 삶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한다. (나)의 '웅졸한 나의 전통'은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부분에 해당한다.
- ④ <보기>에 따르면 (나)는 시대 현실에 울분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시민적 삶에 머물러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나)의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정답 SCAN] ⑤

⑤ [E]에서 화자는 '모래', '바람', '풀'과 같은 자연물을 호명하며 현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다른 대상과 자신을 대조하거나 자신의 보잘것 없는 행동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A]에서 화자는 '왕궁의 음탕'에 분개하거나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 자유를 요구하거나 '월남 파병'에 반대하지는 않으면서 '50원짜리 갈비'나 '야경꾼'과 같이 사소한 대상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과거 '포로수용소'에서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을 때 정보원들로부터 놀림을 받은 일을 회상하고 있다.
- ③ [C]에서 화자는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스편지 만들기와 /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B]에서 언급한 과거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④ [D]에서 화자는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비겁한 것'이라고 말하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5.

[정답 SCAN] ③

③ ㉠은 화자의 괴로움을 일깨우는 대상, ㉡은 웅졸한 삶에 대한 화자의 자괴감을 부각하는 자연물에 해당한다.

[오답 SCAN]

- ① ㉠은 화자에게 괴로움을 환기하면서 일제 강점기라는 외적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 화자가 부정한 권력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외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과 ㉡ 모두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분노를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 화자의 숙명을 각인시키는 것도 아니다.
- ⑤ ㉠과 ㉡ 모두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지는 않는다.

16.

[정답 SCAN] ④

④ (가)에서는 풍족하게 먹지도 못하는 상황을 ‘너무 배불러’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며 노동자들의 고된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에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오답 SCAN]

① (나)에서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나 ‘우습지 않으나’ 등은 물음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에는 물음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없다. ② (가)에서 ‘낮말은 쥐가 듣고 밤말은 새가 들으니’, ‘입이 열이라서 할 말이 많구나’는 관용 표현인 속담을 일부 변형하여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원래 통용되는 속담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이다. (나)에는 관용 표현을 일부 변형하여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 부분이 없다. ③ (가)에서 ‘수염만 허영계 뿌리를 내렸더라’는 색채어가 활용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에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동일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세상에 원’이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부정적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는 한편, (나)에서는 ‘얼마큼 작으나’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17.

[정답 SCAN] ④

④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은 웅졸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 자괴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 저항하다가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SCAN]

① ‘누이는 피 흘려 철야작업을 하고’에서 ‘누이’가 피를 흘릴 만큼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멀리 고향 바라 올렸더라’에서 향수로 인해 애상감에 젖은 ‘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에서 웅졸하게 지냈던 부산 포로수용소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에서 왜소한 존재로서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자조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

[정답 SCAN] ③

③ (가)에서는 평생 농사를 지은 아버지를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 수염만 허영계 뿌리를 내렸’다고 하여 물구나무선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는 아버지로 표상되는 민중의 모습을 뒤집어, 물구나무선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농사에 평생을 바친 이들이 고통받는 농촌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한 화자의 자괴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SCAN]

① (가)에서는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은 비정상적인 나무의 모습으로 시상이 시작되고 있다. 물구나무선 나무, 즉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은 나무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뒤에 이어질 ‘누이’와 ‘아버지’가 고통받는 부정적 현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풍자하기 위한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뺨만으론 살 수 없어’는 인간의 삶은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 이외에 다양한 문화적 욕구도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활용되는 관용구를 풍자를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쌀을 훔쳤더라’는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민중의 비참한 생활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은 ‘이발쟁이’나 ‘야경꾼’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문제 때문에 화자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힘없는 이웃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웅졸하게 분개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는 것은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이 아닌 힘없는 민중에게 분노하는 화자의 웅졸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절정 위’가 아니라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고 말하며 ‘조금쯤 옆에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작 분노해야 할 것들에 대해 침묵하고 힘없는 이웃들만 증오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자신도 각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